

전북 미래발전 골격 마련

도, 국토종합계획 반영 지역계획안 수립 부문별 발전방향에 맞는 9개 추진전략 담아

전북도는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에 반영되는 '전라북도 지역계획안'을 수립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0조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국토공간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며, 2040년까지 국토의 발전방향에 대한 큰 틀을 세우는 중장기 계획으로, 금년 12월말 국토교통부 시안 확정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마련, 하반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말 대통령 승인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 기획관을 부단장으로 하고 실무부서 과장,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의 분야별 전문가, 지역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등 지난 2개월 동안 계획을 마

련했다.

전북도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영향 이슈를 도출하고 부문별 발전방향에 맞는 9개 추진전략과 29개 계획과제를 마련하여 3개의 목표(사방이 활짝 열린 전북, 새 문명이 우뚝 솟는 전북,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전북)를 실현함으로써 다함께 누리는 천년 행복, 환경에 중심! 전라북도 비전을 구현하도록 했다.

더불어, 전북도 공간발전구상으로 지역 내 연계발전을 위해 5개 축(동서상생축, 내륙혁신성장축, 동부휴양힐링축, 서남부건강의료축, 해양레저축) 권역거점을 중심으로 권역별 특화발전을 위해 등 5개 권역(새만금권, 중추 혁신도시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을 설정했다.

특이점은 기존 동부권을 동북과 동남으로 분리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을 더욱 강화토록 하였고 새만금 조기완성을 국토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정부가 이를 적극 실행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구역울 초월하여 타 지역과 연계발전을 위해 대구 경북과 연결되는 동서내륙경쟁벨트, 강원-충청-전라를 연결하는 강진축을 호남선과 서해안 방향의 강진서축과 전라선과 남해안 방향의 강진남축으로 분리 구상했다.

총 29개의 계획과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 미래비전 2050, 대선영 민선 7기 공약뿐만 아닌 현재 최종단계에 이른 균형발전계획 등에 담겨진 주요 사업이 반영됐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전북 대도약 및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발굴 육성을 비롯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SOC 사업 등이 국토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유영민 "연내 통신망 안전대책 수립할 것"

정부-통신 3사 긴급대책회의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전국 통신구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뒤 연말까지 통신망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KT 해화전화국에서 '통신 3사 CEO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급년 말까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내일부터 정부부처와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황창규 KT 회장,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등이 대책 논의를 위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우선 이번 화재에 대해 "비단 KT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 3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오늘 긴급하게 만나자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자리에서 KT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전국 통신구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실태 파악을 전면적으로 시작할 예정임을 밝혔다.

유 장관은 "KT가 (통신망) 복구와 피해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아현통신국이 D등급인데도 서울 지역의 거의 5분의 1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려가지 소망장비들이 준비돼야 하고, 백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는 전국 통신구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시나리오별로 실태 파악을 전면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통신은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인 만큼 통신 3사가 재해나 유사 시에 같이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긴급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긴급 현장보고 자리에서 정부 점검의 무사함이 아닌 D등급 통신 국사에도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현지사의 경우 여전히 D등급이어서 소방 설비나 화재 등 감지 시스템 등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다"며 "정부가 관리하지 못했고, KT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안 썼다. 제2, 제3의 아현과 같은 사고에 대비해 철저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민주당 전북도당, 28일 군산경제 회복 대토론회

위기에 처한 전북 군산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는 28일 군산대학교 웰리스홀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채정룡)와 전북·군산 경제특별위원회 주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성환 군산대 교수의 기초 발언에 이어 군산시 발전 방향과 새만금 개발현황 및 재생에너지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에 대해 나서는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의 발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군산 지역경제발전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련한 자유토론에는 나인호 군산대교수, 김환용 환경단체 녹색연대 사무국장, 서지만 경실련 집행위원장, 유법조 유니드 노조위원장, 김성원 한구산업기술원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장이 패널로 나선 예정이다.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군산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군산 시민들이 제시하는 회복 방안을 실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토론회가 망둥어 가고 있는 군산지역 경제의 회복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발달·맞춤훈련통합센터 개소식이 26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뱅크빌딩에서 실시된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직업교육장을 둘러보고 있다.

장애인 직업훈련·고용 한번에 해결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맞춤훈련센터 개소 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도 본격 추진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에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고용을 원스톱으로 지원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센터가 문을 활짝 열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2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장애인단체, 기업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맞춤훈련센터가 개소됐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시설로서 실제 기업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업체험과 훈련 기회를 동시 제공하며 맞춤형훈련센터는 사업주 수요 맞춤형으로 기업 훈련요구에 필요한 장애인 직무훈련을 실시한다.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맞춤훈련센터는 전주 뱅크빌딩(명주풀사거리)

11~1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센터에 장애인 고용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도 이전에 복합시설로 구성, 통합 운영하게 된다.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세심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전문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내 장애인 수는 13만1600명으로 도내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비율이 높다.

전북도는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내년 하반기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기능개발 장려와 기술 향상을 촉진하고, 사회

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규모의 대회로 수상자는 세계 장애인기능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도는 또 2019년도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구직연령대임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한 발달장애인 등 980명에게 동료지원 활동으로 취업의욕 고취 등 사회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내년도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금부터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1,500억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차기 도 금고에 '농협은행·전북은행'

전북도는 오는 12월 31일자로 현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고 후 11월 26일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차기 도금고 지정대상을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제1금고, 일반회계), 전북은행(제2금고, 특별회계, 기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금고 지정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

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도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7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의원,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위원회 개최 당일 감사관실 직원 입회하여 금고지정을 신청한 금융기관 관계자가 직접 추첨을 통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도 금고 운영관련 2018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 3,897억원, 특별회계 4,982억원, 기금 8,976억원으로 총 6조 7,855억원에 이르며, 차기 도금고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오는 12월 중 도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